

청소년의 숲 체험을 통한 치유효과 분석*

송경환** · 이상호***

An Analysis of Healing Effects through Youth Forest Experience

Song, Kyung-Hwan · Lee, Sang-Ho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atisfaction of agro-healing and analyzed i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in the future. First, a survey of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found that the ratio of participation was 55.6% (125 people). It is analyzed that more than half of teenagers who have experienced agro-healing programs are willing to participate again. Second, a survey of satisfaction with agro-healing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 in agricultural awareness, including increased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This can be seen as a wa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agriculture, as well as the effect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recovery, social integration contributions, and social safety contributions.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wareness on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showed that the less significant it was, the higher the awarenes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other words, various information delivery means, such as public relation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raise awareness of agro-healing. Fourth, it can be seen that those with low satisfaction with expected effects such as health recovery, social safety, social integration, and improved agricultural awareness have a clear difference in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agro-healing program,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agro-healing industry in the future.

Key words : *agro-healing, awareness, forest experience, intention*

* 이 논문은 순천대학교 교연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ecolee@yu.ac.kr)

I. 서 론

농업은 유형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의 서비스 기능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농촌 및 농업의 상품 및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체험관광, 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최근 농촌체험관광 및 6차 산업이 아닌 치유농업이 새로운 농업 및 농촌활성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및 치료원예, 동물치료, 녹색운동, 생태치료, 야생치료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무무형의 활동들을 통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농업 및 농촌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32.8%), 경제적 위협(14.9%), 범죄(13.2%), 국가안보(11.3%), 도덕성 부족(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입시경쟁부터 취업문제, 승진 및 성과급제 평가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치유농업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치유농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등(2017), Park과 Kim (2017), Kim 등(2013), Kim (2018), Lee (2016) 등이 있다. Park 등(2017)은 설문조사를 통해 치유농업 참여 의사와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 경험은 20.9%로 낮았다. Park과 Kim (2017)은 사례마을(전남 영암 선애 마을과 경북 예천 금당실 마을)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체험의 치유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관광의 마음 챙김 및 풍경경관 등은 사전 및 사후 치유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Kim 등(2013)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Kim (2018)은 조성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2016)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치유농업 관련 활동 및 정책 등을 분석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치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향후 참여의향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치유 숲에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참여의향, 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치유농업의 인지도와 인식, 만족도가 향후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II. 치유농업 개념 및 현황

정부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 2조에 정의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후기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와 정신적 질환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healing)의 효과에 주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유농업법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자원을 단순 농촌관광자원을 넘어선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치유목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치유농장에 보급함으로써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치유농업을 실행하는 치유농장(Care farm)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업 소재,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농장시설 또는 사업체로 정의할 수 있다(RDA, 2021). 이러한 치유농장은 다양한 농업활동을 치유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도시 은퇴 전문인력을 치유농장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RDA, 2021). 이러한 치유농업은 노후불안, 청년실업, 근로 빈곤, 가족 기능 약화, 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DA, 2021).

정부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13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유농업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치유농업사의 직무내용은 치유농업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콘텐츠와 환경 보완, 치유농업 서비스 수준 관리하는데, 농림업분야의 국가전문자격으로 I 급, II 급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국내 주요 치유농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의 자원 및 활동내역, 그리고 이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1). 순창농장은 대사성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책, 농작업, 건강식 만들기를 주 1회 4시간씩 7주 동안 시행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47% 증가하고, 비만지표인 허리둘레가 2 cm 감소하였다. 홍천 열목어마을은 소방관을 대상으로 농촌치유자원 체험 활동을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다. 주요 치유프로그램은 치유타레킹, 명상, 약선 치유음식 등이며, 이를 통해 자율신경활성도는 93에서 102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100에서 89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천교도소는 청소년 폭력성 완화를 위해 상자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씩 24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불안감은 45% 감소하였고, 우울증 54% 감소,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실버 주말농장을 주 1회 2시간씩 27주 동안 진행하였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텃밭 가꾸기 및 공동체 밥상 차리기였다. 이를 통해 우울증은 60% 감소하였고, 체지방률은 2%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치유농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치유농업의 개념 및 운영형태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치유농업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향후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 Examples and effects of agro-healing

Case study	Healing agricultural resources and activities	Effectiveness
Health promotion for people with metabolic chronic diseases (Sunchang Farm, 2019)	Farm activities for chronic patient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walks, agricultural work, making healthy food, etc.) * 4 hours of activity once a week (7 weeks)	Increased insulin secretion (47%) Reduced stress hormones (28%) Reduced obesity index (waist circumference of 2 cm ↓)
Link to health (medical) institutions (Hongseong Happy Farm, 2016~)	Agro-healing Experience Camp (5 days) →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mentally ill, 1 month) → Internship (6 months) → Employment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Pulmu Nonggo, Local Food, etc.) Attracting businesses in creative areas (1 billion won, 2017) * 50 million won in annual sales
Near the city agro-healing Management System (Gyeongbuk Province, 2011~)	Vulnerable, disabled, patient target Horticultural Healing Experience Program (2011~) → Opening of Healing Farm (Linked to Health Center)	Connection of dementia patients (guardians), local children's centers, intellectually disabled organizations,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and professional nursing hospitals

Case study	Healing agricultural resources and activities	Effectiveness
Commercialization of Rural Healing Resources - Fireman's mind and body healing (Hongcheon Yeolmok Village, 2018)	Experience in rural healing resources for firefighters (2 days and 1 night - healing trekking, meditation, healing food, etc.)	Autonomous neuronal activity (93→102) Heart Stabilization (98 → 116) Stress Index (100→89) * Additional income of 300 million won after introduction.
Mitigation of Youth Violence (Kimcheon Boys' Prison, 2014)	A box garden program in prison. * Activities for two hours a week (24 weeks)	Reduced anxiety (45% questionnaire) Reduce stress (52%, cortisol content) Reduce depression (56%)
Effects of promoting health for the elderly (Seou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Silver Weekend Farm, 2014)	Planting a garden and setting a table for the community * Activities for two hours a week (27 weeks)	Reduce depression (60%) Reduce total cholesterol (5%) Body fat reduction (2%)
Mitigation of school violence problem (Middle School, 2015)	Fielding Activities (Wee School) * Activities for 2 hours once a week (20 weeks)	Reduced violence among perpetrators (4.3%) Reduced depression of victims (5.4%) Stress response improvement (8.5%)

Source: RDA (2021).

Ⅲ. 분석결과

이 논문은 장성 치유의 숲을 방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유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 225명을 대상으로 치유평업에 대한 인식, 향후 참여의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0년 10월 27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성 축령산 치유의 숲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치유의 숲을 방문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평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4.2%인 167명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5.8%인 58명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Table 2. Recognition of agro-healing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Ratio (%)
I know	167	74.2
I don't know	58	25.8
Sum	225	100.0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 동기를 조사한 결과, 소속감 향상이 34.3%(71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감소가 25.1%(52명), 건강회복이 20.3%(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Ratio (%)
Stress Reduction	52	25.1
Increase a sense of belonging	71	34.3
Improvement in health	42	20.3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20	9.7
Increased concentration	22	10.6
Sum	207	100.0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55.6%인 125명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44.4%인 100명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Intent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Ratio (%)
Participate	125	55.6
Do not participate	100	44.4
Sum	225	100.0

치유농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홍보 부족이 23.7%(53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는 접근성 15.6%(35명), 시설 공간 협소가 14.7%(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보 부족, 치유 프로그램 부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5. Problems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Ratio (%)
Lack of healing programs	26	11.6
Accessibility	35	15.6
A paucity of information	27	12.1
Lack of publicity	53	23.7
Smallness of scale	6	2.7

Classification	Frequency (number)	Ratio (%)
Lack of expert training	6	2.7
Facility Space Narrow	33	14.7
Others	38	17.0
Sum	224	100.0

치유농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대해 매우 그렇다 32.9% (74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이다 32.0% (72명), 약간 그렇다 27.1% (61)로 나타났다. 폭력 저감 등 사회 안전 기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43.1% (97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매우 그렇다 28.4% (64명), 약간 그렇다 21.8% (49명)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48.4% (109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매우 그렇다 27.6% (62명), 약간 그렇다 19.6% (44명)로 나타났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등 농업인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36.0% (81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매우 그렇다 33.8% (76명), 약간 그렇다 26.2% (59명)로 나타났다.

Table 6. Expected Effects of agro-healing

(Unit: number, %)

Classification	Not very satisfied	Not satisfied	Normal	Satisfied	Very satisfied	Sum	Average ¹⁾
Mental and physical health restoration	7 (3.1)	11 (4.9)	72 (32.0)	61 (27.1)	74 (32.9)	225 (100)	3.8
Contributions to social safety such as reducing violence	5 (2.2)	10 (4.4)	97 (43.1)	49 (21.8)	64 (28.4)	225 (100)	3.7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3 (1.3)	7 (3.1)	109 (48.4)	44 (19.6)	62 (27.6)	225 (100)	3.7
Improving awareness of agriculture, such as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3 (1.3)	6 (2.7)	81 (36.0)	59 (26.2)	76 (33.8)	225 (100)	4.2

Note: 1) Average is calculated by applying following: not very satisfied = 1, not satisfied = 2, normal = 3, satisfied = 4, very satisfied = 5.

2) Value in parentheses denotes the ratio.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낮았지만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 등 다양한 정보전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Table 7. The effect of recognition of agro-healing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Recognition	I know	Frequency	96	71	167
		Ratio	57.5%	42.5%	100.0%
	I don't know	Frequency	29	29	58
		Ratio	50.0%	50.0%	100.0%
Sum		Frequency	125	100	225
		Ratio	55.6%	44.4%	100.0%

Note: $\chi^2 = 0.977$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참여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

Table 8. Effects of health recovery satisfaction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Mental and physical health restoration	Not very satisfied	Frequency	0	7	7
		Ratio	0.0%	100.0%	100.0%
	Not satisfied	Frequency	2	9	11
		Ratio	18.2%	81.8%	100.0%
	Normal	Frequency	25	47	72
		Ratio	34.7%	65.3%	100.0%
	Satisfied	Frequency	42	19	61
		Ratio	68.9%	31.1%	100.0%
	Very satisfied	Frequency	56	18	74
		Ratio	75.7%	24.3%	100.0%
Sum		Frequency	125	100	225
		Ratio	55.6%	44.4%	100.0%

Note: $\chi^2 = 44.129$

족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참여의향이 75.7% (56명)로 나타났다. 즉,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저감 등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참여의향이 20%인 반면,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참여의향이 68.8% (44명)로 나타났다. 즉, 폭력저감 등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Effects of social safety satisfaction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Contributions to social safety such as reducing violence	Not very satisfied	Frequency	1	4	5	
		Ratio	20.0%	80.0%	100.0%	
	Not satisfied	Frequency	3	7	10	
		Ratio	30.0%	70.0%	100.0%	
	Normal	Frequency	44	53	97	
		Ratio	45.4%	54.6%	100.0%	
	Satisfied	Frequency	33	16	49	
		Ratio	67.3%	32.7%	100.0%	
	Very satisfied	Frequency	44	20	64	
		Ratio	68.8%	31.3%	100.0%	
	Sum		Frequency	125	100	225
			Ratio	55.6%	44.4%	100.0%

Note: $\chi^2 = 16.560$

사회통합 기여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참여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참여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참여의향이 64.5% (40명)로 나타났다. 즉, 사회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10. Effects of social integration satisfaction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Not very satisfied	Frequency	0	3	3	
		Ratio	0.0%	100.0%	100.0%	
	Not satisfied	Frequency	1	6	7	
		Ratio	14.3%	85.7%	100.0%	
	Normal	Frequency	54	55	109	
		Ratio	49.5%	50.5%	100.0%	
	Satisfied	Frequency	30	14	44	
		Ratio	68.2%	31.8%	100.0%	
	Very satisfied	Frequency	40	22	62	
		Ratio	64.5%	35.5%	100.0%	
	Sum		Frequency	125	100	225
			Ratio	55.6%	44.4%	100.0%

Note: $\chi^2 = 15.032$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등 농업인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농업인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참여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인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참여의향이 전혀 없는 반면,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참여의향이 67.1% (51명)로 나타났다. 즉,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등 농업인식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11.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gro-healing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Improving awareness of agriculture, such as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Not very satisfied	Frequency	0	3	3
		Ratio	0.0%	100.0%	100.0%
	Not satisfied	Frequency	1	5	6
		Ratio	16.7%	83.3%	100.0%

Classification			Intention		Sum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Improving awareness of agriculture, such as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Normal	Frequency	30	51	81
		Ratio	37.0%	63.0%	100.0%
	Satisfied	Frequency	43	16	59
		Ratio	72.9%	27.1%	100.0%
	Very satisfied	Frequency	51	25	76
		Ratio	67.1%	32.9%	100.0%
Sum	Frequency	125	100	225	
	Ratio	55.6%	44.4%	100.0%	

Note: $\chi^2=29.954$

IV. 요약 및 결론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연구, 정책, 인력양성 등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논문은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유농업에 참여할 의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55.6%인 125명으로 분석되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재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시설공간의 협소 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유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등 농업인식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유농업이 직접적으로 정신 및 육체적 건강회복, 사회 통합 기여, 사회 안전 기여 등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치유농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성은 낮았지만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 등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회복, 사회안전, 사회통합, 농업인식 개선 등의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향후 참여의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치유

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 있는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만족도가 치유농업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치유농업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가 필요하다. 향후 치유농업의 프로그램 특성과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유농업의 효과와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Submitted, July. 31, 2021 ; Revised, August. 20, 2021 ; Accepted, August. 22, 2021]

References

1. Lee, Y. J. 2016. Social Agriculture in the Netherlands: Care Farmi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 Kim, O. J. 2018.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sumers' Intention of Using Care Farms: Focused on the Control Variables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3. Kim, G. M., J. Y. Moon, S. J. Jeong, and S. M. Lee. 2013.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4): 909-936.
4. Park, J. A. and B. G. Kim. 2017. Therapeutic Effects of Rural Tourism Experiences. Korea Forest Recreation Society. 21(2): 83-92.
5. Park, S. A., A. Y. Lee, G. J. Lee, W. L. Lee, S. J. Bae, B. J. Park, and D. S. Kim. 2017. A Study of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J. People Plants Environ. 20(1): 19-24.
6. Rural Development Agency. 2021. <http://www.nongsaro.go.kr>
7. Statistics Korea 2021. 2020 Social survey.